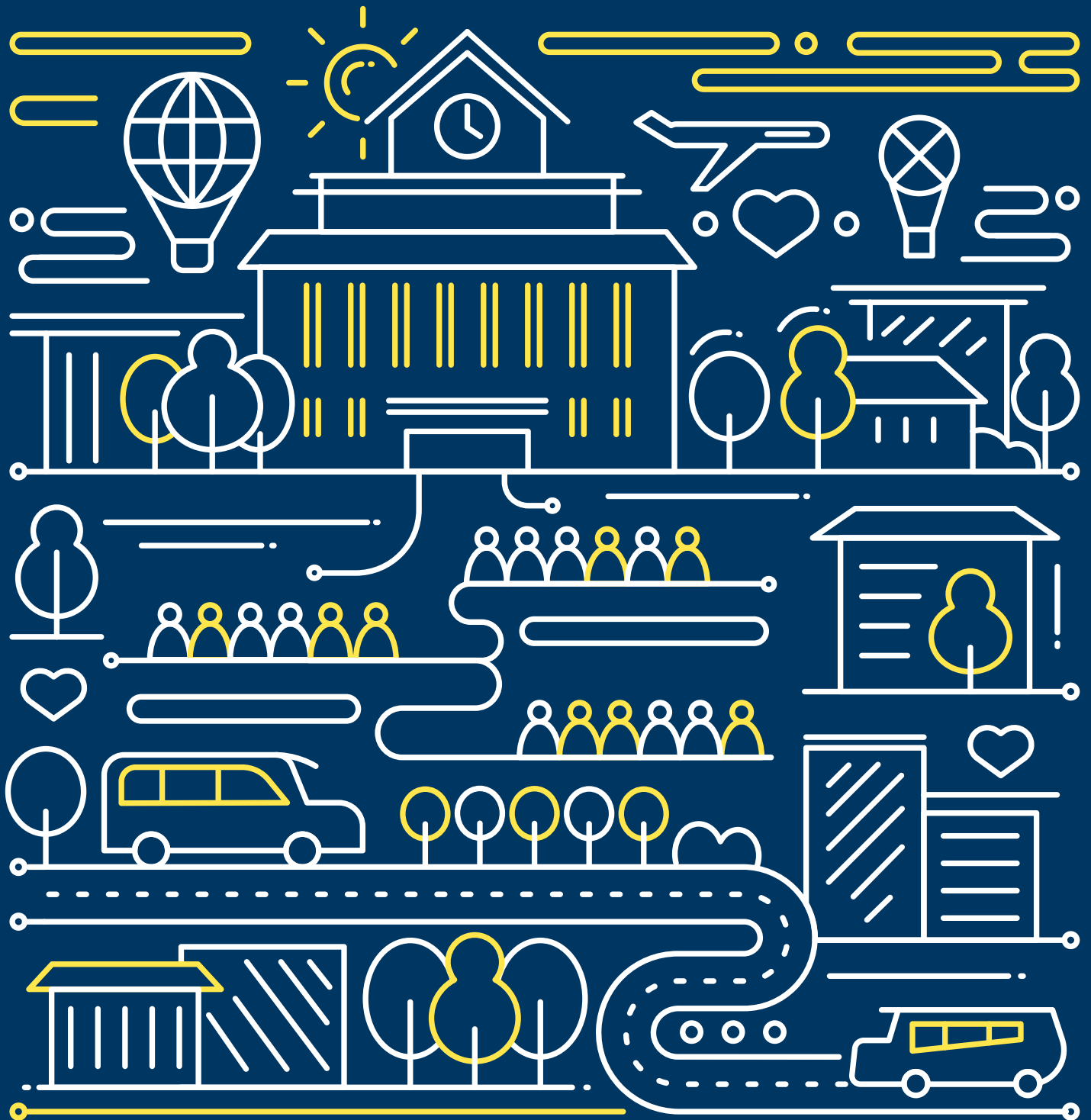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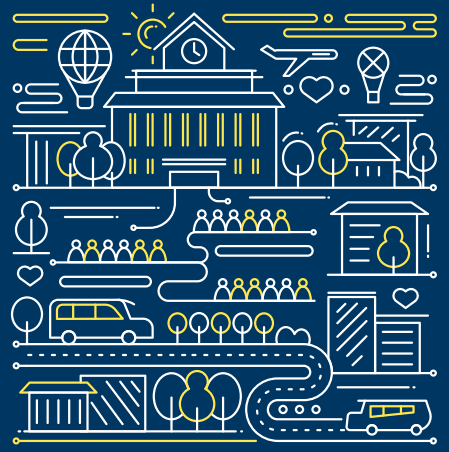


2023년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 찾아가는 학교교육 우수후기



# 목 차



## 2023년 1학기 우수후기

- 충북 갈원초등학교 1,2학년 1반 (합반)
- 전남 봉황초등학교 1,2학년 1반 (합반)
- 세종 반곡초등학교 4학년 3반
- 충북 갈원초등학교 3,4학년 1반 (합반)
- 대전 선암초등학교 3학년 3반
- 서울 신도림초등학교 5학년 3반
- 제주 함덕초등학교 3학년 1반
- 경남 남해초등학교 6학년 4반
- 강원 구래초등학교 4,5,6학년 1반(합반)
- 전북 부안초등학교 5학년 1반

## 2023년 2학기 우수후기

- 경기 김포구래초등학교 3학년 2반
- 경기 배곧해솔초등학교 2학년 1반
- 전남 목포미항초등학교 2학년 1반
- 서울 수암초등학교 5학년 2반
- 대구 남산초등학교 5학년 4반
- 경기 삼성초등학교 5학년 1반
- 강원 봉대초등학교 2학년 4반
- 충남 서산예천초등학교 6학년 2반
- 부산 백양초등학교 2학년 1반

"갈원초등학교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디지털 세상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원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디지털 세상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즐기 위해서만 떠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미래 과학이 엄청 발달한 디지털 세상, 스마트 기기로 사람들의 생활은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졌지만, 큰 문제로 무시무시한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갈원 1~2학년 어린이들은 선생님, 친구와 함께 디지털 세상,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로위로 백신을 만들기 위해 와이파드국으로 떠났습니다.

와이파드국 사람들은 괴롭괴롭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로 인해 얼음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힘을 모아 위로위로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롭괴롭 바이러스가 사이버폭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스토킹, 개인정보유출, 따돌림 등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기 위한 **예방 수칙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로위로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여러가지 다양한 감정도 알아보고, 감정 표현 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사이버 폭력을 하는 친구, 형, 누나들을 보면 '하지마'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라고 다짐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파드국으로의 여행과 문제 해결을 완료하고 여권에 도장을 시원하게 '꽂' 찍었습니다.

다음 나라는 인터네키스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인터네키스탄도 큰 위험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리아 초등학교에 슈퍼 영웅을 함께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디지털 슈퍼 영웅을 생각하고 공유했습니다.

**친구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필살기를 가진 슈퍼영웅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슈퍼 영웅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시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시민 선언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네키스탄

키보드리아 초등학교의 슈퍼 영웅이 탄생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권에 인터네키스탄 도장을 '꽂' 찍으며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갈원 1~2학년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짐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하니 학생들의 참여도도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시고 활동을 이끌어주신 **선생님의 역량도** 매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신 점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교육 활동에 다시 학생들과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전남 봉황초등학교

1,2학년 합반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볼겠다, 도와주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봉황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이미선입니다.

처음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을 받아보았을 때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프로그램 이름 하나하나 마저 아이들의 흥미를 확 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교구도 다양하고 자료도 탄탄해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 톤과 몸짓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사로잡기에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여권을 나누어주신 후, "이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물을 여러분께 드릴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줄 가이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호기심 넘치는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제시해주신 시청각 자료들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잘 풀어서 있어서 좋았고 강사님께서 부가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 함께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사이버폭력'이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고, 다소 실제 경험과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저희 학교 1-2학년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폭력에 대해서만 다루는게 아닌 **마음 속의 여러 감정들을 다루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친구들의 감정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는 것,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무겁게만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가져야 할 마음을 체득하였고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온라인에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볼겠다, 도와주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간접 경험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이 끝나고 너무 재미있었다며, 나중에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끝나고 받은 선물들이 정말 좋았는지, 저에게 바로 달려와서 캐릭터 벤티지를 소지품에 달아줄 수 있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어제 일도 잘 잊어버리는 친구들인데 소소한 기념품들로 인해 끊임 없이 **"아, 그 때 그 수업!" "사이버 폭력은 나쁘다고 배웠어요!"**라고 **상기하는 모습**이 참 예쁘기도 하구요.



이렇게 퀄리티 좋은 교구들과 함께 우수하신 강사님께 받는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전남의 면단위 **작은 학교**로 많은 교육들을 신청하기엔 조건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세종 반곡 초등 학교

4학년 3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렇게 재밌게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디세 학교 방문 교육을 신청해서 강의를 듣게 된 교사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콘텐츠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라든가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의 테마 자체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하였고 일방적 교육이 아닌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교육때 받은 자료와 기념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신청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과 더불어 강의를 진행해주신 강사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디지털 세상을 구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렇게 재밌게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인연 지속하고 싶습니다.

# 충북 갈원초 초등 학교

3,4학년 합반



"의미있는 교육 활동을 마련해주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과 카카오  
감사합니다!!!"

갈원초 3~4학년 학생들이 모여 디지털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나라 인증 도장을 모아 비밀의 상자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

첫번째 나라는 카카 오이슬랜드입니다. 카카 오이슬랜드에 거대 악인 '돈데기리기리 돈내꺼만'을 물리치기 위해 **디지털 세상 속 분별력**을 키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SNS, 웹사이트,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거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카카 오이슬랜드를 지켜라" 보드게임을 즐겁게 하며 여기 저기 많이도 숨어 있는 돈데기리기리 돈내꺼만의 부하 '마피아'를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뛰어난 추리력과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에 놀라워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다시는 '돈데기리기리 돈내꺼만'이 보이콧피싱, 악성댓글, 가짜뉴스와 폭력 등의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나라는 좋아요르웨이였습니다. 좋아요르웨이에서는 '피카씨'씨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디지털 문화, 그리고 자신의 저작권을 빼앗기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실에서 그린 글과 그림 등 다양한 작품에도 우리의 저작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피카씨'씨를 구하고 우리의 저작권도 함께 지키기 위한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한 SNS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럴 줄 모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이 보여주신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려하길래 옆에 짝꿍이 '너 그거 베끼는 나쁜 행동이잖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작권, 그리고 친구의 작품을 지키는 생활을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힘 교육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디지털세상 교육, 저작권 교육 활동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지루하겠더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마련한 교육 활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준비, 그리고 스토리텔링, 다양한 교구가 어우러져 학생들의 호응도, 그리고 참여도가 매우 높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역량도 자연스럽게 갖춰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의미있는 교육 활동을 마련해주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과 카카오 감사합니다!!!

# 대전 선암 초등 학교

3학년 3반

"즐거운 시간으로 지도해 주신 강사님과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주시는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번 김\*민: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악플이나 기분이 안 좋아지는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2번 김\*준: 저는 사이버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번 최\*준: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번 박\*찬: 친구들을 착하게 대하고 사이버 폭력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번 박\*휘: 사이버 세상에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번 박\*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번 방\*울: 저는 디지털세상에서 착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번 윤\*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상에서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번 이\*호: 디지털세상 속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고 악플을 절대로 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번 이\*후: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서 더 좋은 사이버 시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번 임\*서: 댓글에 악플을 달거나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1번 김\*윤: 인터넷에 악플을 달지 않고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2번 김\*오: 장난으로라도 친구들을 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3번 박\*원: 사이버 폭력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갈취와 강요 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번 신\*은: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5번 윤\*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고 절대 사이버 악플을 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6번 이\*은: 저는 앞으로 더 정직하고 좋은 디지털시민이 되겠습니다.

27번 이\*윤: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8번 조\*지: 나는 이제부터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전화로 친구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이나 별명을 쓰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9번 조\*람: 앞으로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쓰지 않고 친구가 좋아하는 말을 사용해야겠습니다.

30번 추\*서: 사이버 폭력을 당하지도 않고 가하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교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활동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알차고 즐거운 시간으로 지도해 주신 강사 선생님과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주시는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신도림 초등 학교

5학년 3반

"수업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았고,  
2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릴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 반짝한 눈으로 강사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디지털 시민교육을 이수한 신도림초 5학년 3반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진행된 수업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았고, 2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릴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활동지를 열심히 작성하고 발표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활동지 내용을 살펴보니 수업 내용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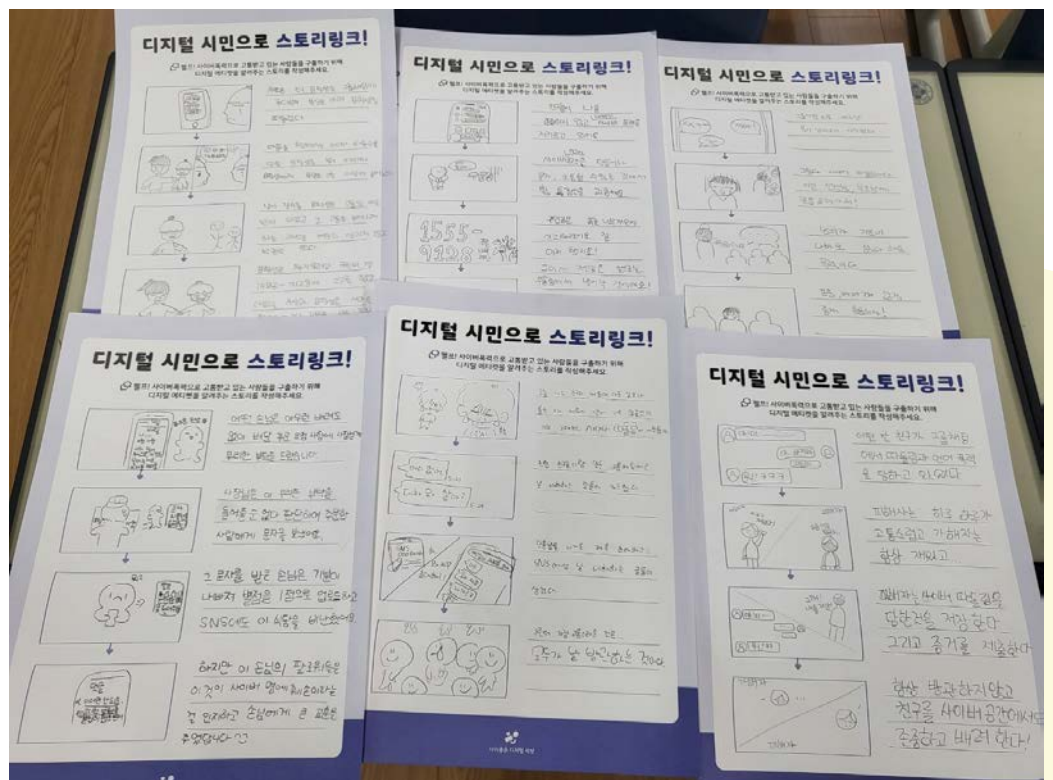
작성한 활동지는 교실에 게시하여 서로 읽어보게 하였습니다.

5-3반 어린이들은 사전설문지 작성 단계부터 디지털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푸른나무재단에 대해 인터넷 검색도 해 보는 등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접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녀야 할 에티켓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접목시켜 잘 진행해 주신 강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어린이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더 많은 학교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주 함덕 초등 학교

3학년 1반

"내용 역시 진부하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아 이해를 쉽게 하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강사님께서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참 참신했습니다.

선생님께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미 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용 역시 진부하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아 이해를 쉽게 하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 아이들의 몇몇 소감을 모아 보았습니다.

류\*\*-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긴 하지만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디지털 세상을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

김\* - 나는 사이버 폭력을 하지 말아야겠다.

김\*\*- 디지털 세상의 종류와 현실에서도 해선 안되는 말을 새롭게 알게되었다. 아직까지 한 적 없지만 앞으로도 안 쓰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굳게 생겼다.

김\*\*- 디지털 세상에서 언어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착한 말을 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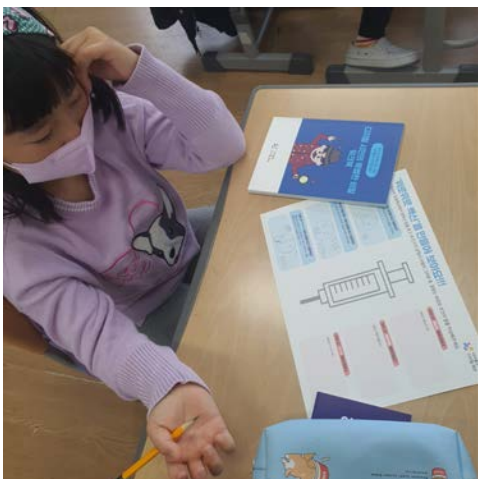
김\*\*-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을 쓰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보는 즉시 어른들에게 말해야겠다.

박\*\*- 이제 디지털 세상, 디지털 폭력을 잘 알았으니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디지털 세상을 잘 지키겠다.

양\*\*- 저는 인터넷 세상 에티켓을 잘 지키겠습니다.

김\*\*- 오늘 디지털 세상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디지털 세상이 이런거구나 라는 것도 배웠다.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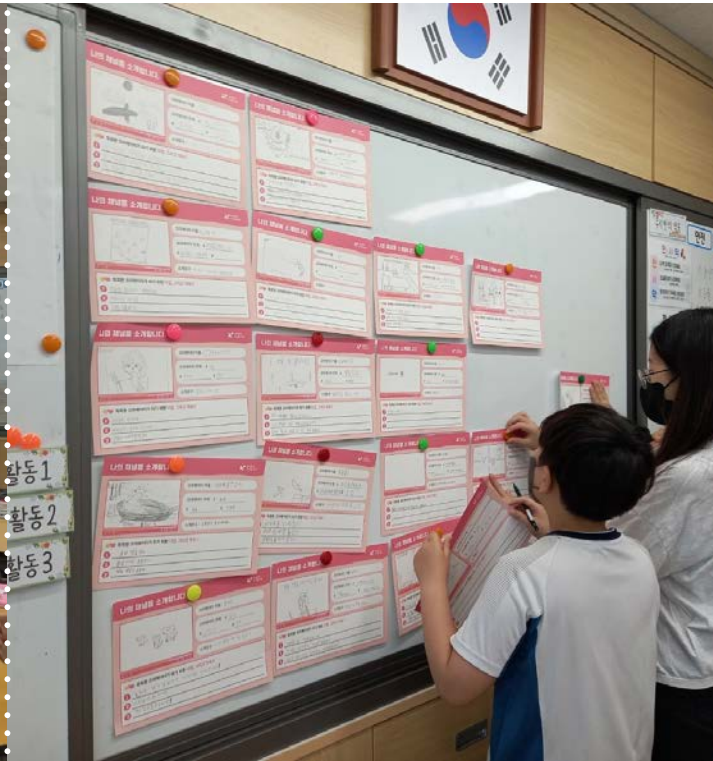
이런 아이들의 **생각들이 점차 퍼져 평화로운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경남 남해 초등 학교

6학년 4반

"인터넷? SNS? 디지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연한 이미지만 떠올렸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 컴퓨터? 인터넷? SNS?'

디지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연한 이미지만 떠올렸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시간, 활동 안내와 미션 1

미션을 해결하기 전 '분별력, 개인 정보, 저작권' 등의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고, 사례를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 지켜야할 수칙을 배우며 디지털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충분한 개념학습 후 첫 번째 미션인 <크리의 실수를 찾아라!>를 해결하여, 앞서 배운 개념을 올바른 행동으로까지 적용했습니다.

### 두 번째 시간, 미션2 및 활동 마무리

많은 아이들이 개인 SNS를 운영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아이들도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 <나의 채널을 소개합니다>를 수행하며, 네 가지 역량을 갖춘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며 본인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미션을 해결하며 여권에 스티커를 한 장, 두 장 붙일 때 마다 성취감에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함께 여행을 하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을 숙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설명해주는 선생님의 상냥함 덕분에 아이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궁금한 점을 스투스럼없이 묻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디지털의 의미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바른 태도를 빠르게 배우고 습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세상을 꾸려나갈 우리 아이들이 사디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한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급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 강원 구래 초등 학교

4,5,6학년 합반

"우리 학교는 전교생 14명의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교육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정말 뜻깊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 디지털시민교육을 수강한 구래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알차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난 후 꼭! 후기를 작성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14명의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거리도 멀고 학생 수도 적어서 외부교육을 계획할 때마다 어려움이 적지 않지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교육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정말 뜻깊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2회기를 수강했습니다. 학생 수도 적고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하다보니 수업 수준을 정하기에도, 수업을 운영하기에도 쉽지 않는데 강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셨는지, 답임인 저도 감동했습니다.

한 명씩 눈 맞춰주시고 아이들의 한 마디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어요.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으시고 저에게도 얼마나 자세히, 친절히 안내해주셨는지요.

사디세의 사전 준비과정과 교육내용도 정말 짜임새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 준비사항에 대해 미리 꼼꼼히 체크하시고 안내해주셔서 학교 차원에서도 준비가 수월했습니다. 또 교육내용도 스토리텔링과 함께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주제로 잘 짜여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권이나 배지, 비밀의 상자 등 교구도 정말 재미있었구요!  
(아이들이 배지가 너무 귀엽다며 모두 가방에 달고 다닙니다^^)

강사님께서 안내해주신 다른 교육도 꼭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교육이었습니다.

좋은 교육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늘 노력하겠습니다.



# 전북 부안 초등 학교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이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부족한 시점에서 더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LINK

부안초등학교

5학년 1반

## 디지털 시민으로 LINK

건강한 디지털 시민되기

## 🔒 디지털 시민의 약속!

꼭 지켜요!

사이좋은 디지털 시민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발표해볼 친구들....?



## 미션을 시작하기 전!

## 미션완료!



사이버폭력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2023년 6월 20일! 사디게 강사님과 5학년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1~2교시는 5학년 1반 친구들, 3~4교시는 5학년 2반 친구들, 5~6교시는 5학년 3반 친구들...

몰아치는 스케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을 갖고 흥미롭게 지도해주신 강사님 덕분에 5학년 친구들이 모두 사이좋은 디지털 시민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이버 폭력이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부족한 시점에서 더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친구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사이버 태도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친구들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숙한 사이버 시민이 되길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재밌는 PPT와 다양한 사례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신 선생님과 소중한 기회를 주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포 구래 초등 학교

3학년 2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뜻뜻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었다."



일전에 TV에서 접한 내용이 문득 생각난다. 1995년 16세의 한창 피어올라 세상으로 나아갈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야기였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이 땅에 더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남은 인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고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날개를 움직이는 데서** 시작했다.

좋은 기회가 있어 푸른나무재단의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학급 아이들과 함께 전문 선생님께서 오셔서 진행해 주셨다.

내가 알고 있던 그 푸른나무재단이 맞나? 하고 처음엔 가웃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보니 우리가 아는 그 푸른나무재단이 맞았다.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자기의 일상을 누군가와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모든 게 손바닥만한 폰 안에서 이뤄지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그때의 기억이 난다. 어떻게 하는 건지, 깔린 앱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헛갈렸지만 어느덧 우리 세계에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실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 어려서부터 폰 안의 세상을 접하고 자란 아이들이라 **태생부터가 디지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한다. 친구들과 마주보며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뿐 서로의 폰을 보며 게임하고 노는 모습이 요즘 아이들의 모는 모습이다는 것을 말이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디지털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되어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수업 전 많은 자료가 담긴 택배 상자가 도착해 다채롭고 유익한 활동들이 전개되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는 기본 태도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곳곳 여행하는 것 처럼 구성하여 **여권을 준비하여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받아 비자를 발급받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아주 흥미로웠다. 이모티콘이아, 블링블링섬, 와이파이트국, 인터네키스탄 등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여 **디지털 시민의 역량을 찾아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작은 스탬프지만 실제 여권인 것처럼 구성하여 남은 여권을 더 달라는 열성적인 학생들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디지털 세상을 넘어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로 우주 공간까지 콘텐츠가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수업에서는 우주 공간을 다루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학급 아이들과 같이 꼭 접해보고 싶다.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토대로 친구의 감정을 살펴보고 공감한 후 표정을 그리고, 위로와 조언의 따뜻한 공감의 말을 써 보는 위 로위로 백신 만들기는 활동 이름 만으로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을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12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선생님께서 많은 활동을 준비해 오셔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으며 수업이 끝나고 주어지는 디지털 시민 인증서는 지금 우리 학급 앞에 게시되어 있다.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학생들 스스로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고, 무엇보다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뜻뜻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었다. 오늘의 좋은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기르고 **존중과 배려로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의젓한 민주시민으로서 멋지게 날아오를 우리 김포구래초 3학년 2반 친구들 응원합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수업은 사이버폭력 문제에  
아이들이 공감하는 과정과 피해 회복을 돕는 실천에  
주목해서 참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건 바로 나! 배곧해솔초등학교 2학년 1반입니다.

아이들과 동요 네잎클로버를 편곡하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름방학 **교사 연수**를 들을 때, 아직 디지털 시민 첫걸음 프로그램을 알지 못했을 때, 인터네키스탄으로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과 노래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찾아오는 학교 교육 덕분에 한 번 더 떠올리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송**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사이로 존중 물 흐르는 2학년 1반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배려 먹고 피어난 네잎클로버  
랄랄라 존중 랄랄라 책임 랄랄라 관계 랄랄라 회복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BGM, 노래 네잎클로버 / 깊고 작은 산골짜기 시아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의 푸른이 해달이를 무척 좋아하는 우리 2학년 1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6월 1일, **사디세 교사 연수 덕분에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파견된 강사님을 학교에 모실 때는 고마운 마음과 소중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큼니다. 제가 찾아오신 강사님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마주하였을지 염려됩니다.

찾아오신 강사님께서 우리 반 학생들을 정말 많이 칭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평소 아이들에게 회복적 가치(노래에 나타난 존중, 책임, 관계, 회복)와 방식(직면, 공감, 인정, 수용, 참여, 용서, 화해등)에 대해 수업시간에도 자주 얘기해줘서 그런지, 아이들은 '관계와 '피해 회복', 그리고 '필요'와 관련한 언어를 2학년인데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강사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 아이들이 참 으쓱해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트국에 무엇이 필요인지 질문하셨지요. 아이들이 화면에 초성도 안 띄워졌는데 **디지털 에티켓**이라고 말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혹시 이 수업을 미리 했나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 강사님의 인정하는 말 덕분에 담임교사인 저도, 우리 아이들도 내심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반은 사디프의 오염된 우주(에티케시티, 니꺼내꺼시티, 찰칵시티, 누가누구랜드)를 정화시키며 **디지털 시민성과 덕목을 연결**하며 공부한 터라 어쩌면 우리 반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에티켓**이라는 시민성과 **존중, 배려, 그리고 공감**이라는 가치에 비교적 익숙했던 까닭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과 교안, 활동지를 만드는 것은 주의를 집중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수업은 사이버폭력으로 오염된 나라의 문제에 **아이들이 공감하는 과정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실천에 주목해서 참 좋았습니다.** 결백, 공감, 존중, 배려를 심어주는 백신 만들기는 참 좋았습니다 :) 그리고 위로 백신 만드는 부분이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로 업데이트 되었더라구요 :)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친절하 자료** 감사합니다 :)

사디세와 사디프 덕분에 아이들과 **디지털 시민성**(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리터러시, 에티켓, 사이버폭력, 정체성 등)

1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참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싶습니다. 사디세 화이팅!)

# 목포 미향 초등 학교

2학년 1반

"우리 학생들이라도 이런 혼란과 문제 속에서  
중심을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디세 교육을 신청.."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첫걸음, 어려운 말이라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난감한 점도 있어서 수업에 대한 사전 안내 설명 없이 우리 반 학생들이 사디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 **열정적인 모습과 생기 넘치는 목소리의 강사님**을 보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리고 호기심과 흥미로 집중되는 것을 목격하고 담임으로서 약간의 질투심까지 느끼며 수업 시작!

와이파이트 초등학교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의 감정을 살펴보고 위로와 조언의 말을 찾아 연결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우고 인지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어서인지 와이파이트국 이야기 미션을 시작하는 시간에 눈이 더 반짝이면서 진지한 표정까지 하며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이 대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교구로 준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텔링식 수업**이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네키스탄 여행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에티켓이 무엇인지 배우고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디지털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는 동안 다시 한번 공감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리아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미 배웠던 디지털 에티켓을 통해 해결하면서 디지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학년을 비롯해 유치원생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이다 보니 무방비로 노출된 디지털 세상에서 혼란과 갈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라도 이런 혼란과 문제 속에서 중심을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디세 교육을 신청**하였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미한 교육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디지털 교육을 재미있고 즐겁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두 시간 동안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했고 꼭 필요한 교육을 완전학습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디세 교육의 특징은 **사례 중심으로 가상의 세계를 스토리 형식으로 이어가는 교육**이러는데 남다른 교육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강사님의 **능숙한 진행과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는 교육 기술**이 남다른 빛을 발휘하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흥미에 맞춰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며 전개하는 수업**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필수로 요구되는 교육이라 이번 수업을 보면서 담임으로서 새로운 계획과 각오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잊지 않고 사디세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팀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서울 수암초등학교

5학년 2반

"사디세 수업은 달랐습니다. 교사인 저도 빠져들만큼 강사님의 수업진행이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수업을 신청하긴 했지만 그냥 통상적인 수업이겠거니 했는데 이번 수업은 달랐습니다. 교사인 저도 빠져들만큼 강사님의 수업진행이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바꾸고 사이트마다 다르게 해야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공용PC의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한다는 내용은 **저에게도 새롭고 유익**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말로하는 폭력도 실제로 하는 폭력만큼 상대방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며 이 때 정신적고통과 신체적고통의 상처가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에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완화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은 무척 신기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악플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후여서 학생들에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이버 상의 언어 폭력이 어떤 사람에게 는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 폭력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절대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내용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지 생각해보면서 그런 폭력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된 것도 좋았고 **모둠별로 디지털에티켓 수칙도 만들어봐서 유익**했다고 합니다.

많이 들은 내용이라 집중을 안할수 있는데 강사님께서 집중을 잘하게 퀴즈도 내고 영상도 보여주고 비밀상자도 가져오시고 열심히 하면 비밀상자 열어서 선물도 주신다고 하는 등 **초등학생의 심리상태에 맞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수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와서 훌륭한 가이드가 설명을 해 주는 것처럼 **수업이 생동감있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유익**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신청하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추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적인 수업이겠거니 하고 별로 기대를 안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 틀을 벗어나 **학생들이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을 세부적으로 흥미롭게 알려줘서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강사님의 수업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반짝이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하게 수업해 주신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대구 남산초등학교

5학년 4반

"의미있는 수업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이버 세상이 바른 예절로  
물들어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물씬 듭니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5학년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11월 둘째 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기기는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그에 따른 에티켓과 사이버 범죄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사이버 예절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4단원<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단원이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세상 수업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현재 5-4학년은 4단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도 좋지만, <햇빛초 대나무 숲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라는 이야기책을 곁들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는 익명성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오가는 글과, 그를 방관하는 아이들, 친구관계를 고민하는 아이들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실세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않도록 지도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톡방도 스스로없이 이용하고 있지요.  
이런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이버 예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들이 적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의미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3가지 뉴스 사례를 보며, 각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동요령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업 후 디지털 시민 인증서와, 관련 굿즈를 나누어 주셔서  
학생들의 기억에 더 남는 수업이 된 듯 합니다.

학생들의 의미있는 경험을, 단체사진으로 남겨 보니다.

의미있는 수업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이버 세상이  
바른 예절로 물들어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물씬 듭니다.



# 경기 삼성 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육 전부터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내를 살펴보며  
1학기에 떨어진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 보통이 아니다."



드디어 오늘이다! 1학기 때 지원했던 수업에 푹! 떨어지고 나서야 더 애가 달았다.  
2학기 당첨 소식을 받고 주간학습안내를 작성하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미리 준비된 교구가 학교로 배송되고, 사전 설문지가 안내되고, 교육 전부터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내를 살펴보며  
1학기에 떨어진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 보통이 아니다.

연구실에서 처음 본 강사님의 모습에서 이 프로그램의 명확한 컨셉을 알 수 있었다.  
여행과 같은 수업. 마치 바티칸 공인 가이드처럼 전문가의 식견을 갖춘 것은 물론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 리더십까지  
우릴 이끌어 디지털 세상으로 떠나게 해주셨다.

아이들의 마음을 홀린 귀여운 캐릭터와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알아보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일한 수업내용 못지않게 교구 구성 또한 아무지다. 그 어느하나 소홀함 없이 여럿이 공들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수업 구성품이었다.

나의 교생시절 대표수업을 준비하며 밤을 새우던 어느 날을  
회상하며, 우리 반 아이들이 **여권에 도장을 받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겹쳐보니, 꼭 이 모습을  
사디세에 전해야만 한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여러분이 준비해주신 한 세트의 수업이  
이렇게 빛나고 있노라고.

다음에도 가능할까? 한번 겪어보니,  
다음이 더욱 아득해진 수업이었다.

어느 날 선물처럼 다가온 여행과 같은 수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비밀의 상자를 열겠다는 목적으로 하늘하늘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들 손길이 아무지게 변하면 이 날을  
떠올리고자 여행일기를 적어보았다.**

무사히 디지털 세상의 탐험을 마친 아이들에게 주어진  
비밀의 상자처럼 나에게도 비밀의 상자가 주어지길 바라며...



# 강원 봉대 초등학교

2학년 4반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나무재단 사이좋은은 디지털 세상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봉대초등학교 2학년 4반에서 참여했던 건 올해 들어 **아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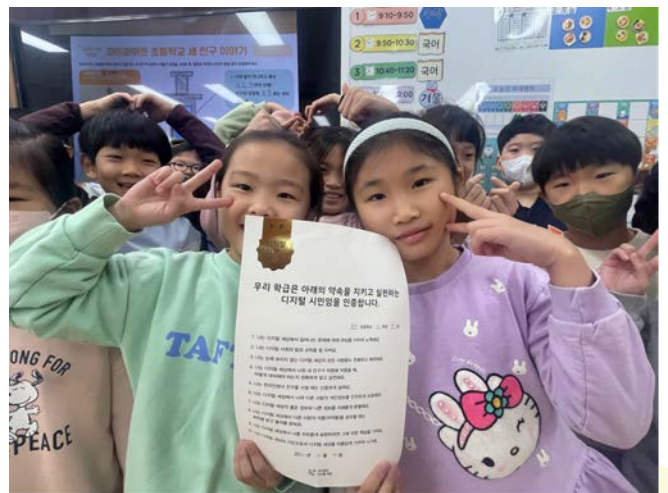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가깝고도 먼 디지털 세상.

무분별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올바른 태도로 디지털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지, 무분별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않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멋진 수업과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 **아이들이 정말 지루할 틈이 없었고 아직도 아이들이 여권을 들고 기뻐하며 환히 웃는 모습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

요즘 현대 사회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수업해 주셔서 아주 유익 한데다 여권, 여러 가지 미션 등을 통해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참 즐겁게 참여했던 거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디지털 사회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키보드리아 초등학교 친구들이 잃어버린 존중, 배려, 공감, 아름다운 말을 다시 찾기 위해서 2학년 4반 친구들이 적은 약속을 꼭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봉대초 2학년 4반 친구들에서 나아가, 봉대초 2학년 전체 친구들까지,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까지 이 수업에 참여하는 날, **따뜻한 말이 오가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따뜻한 디지털 세상 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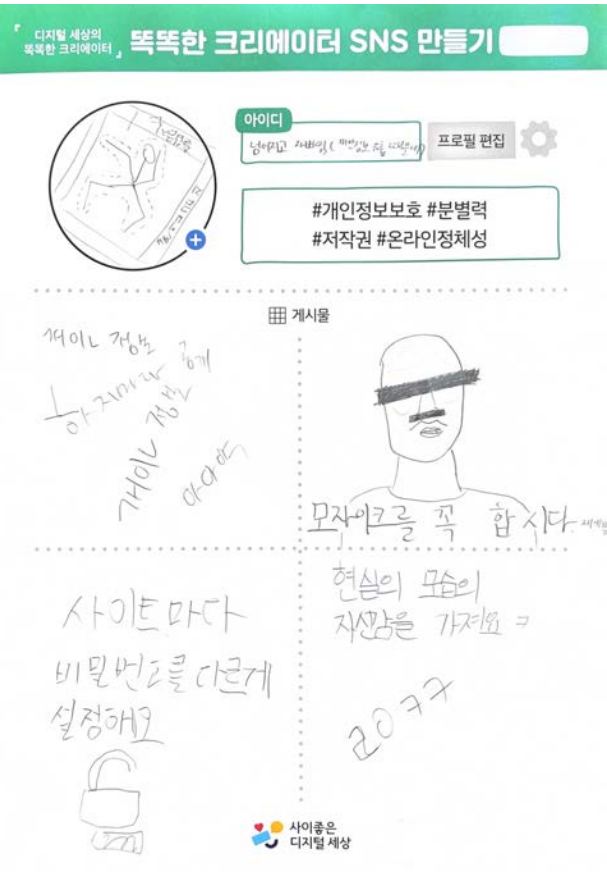
다시 한번,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서산 예천 초등 학교

6학년 2반

"재단에서 우수한 강사를 선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푸른나무재단의 강사님이 우리 교실에 오셨어요.

일주일 전 강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교육용 물품이 잘 도착했는지와 학교상황을 물어보셔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가 하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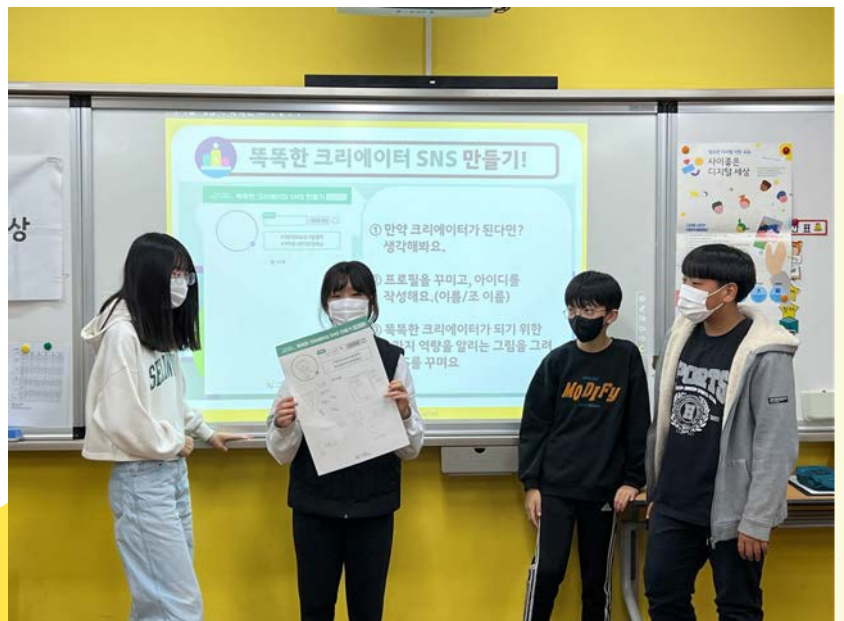
또 학교로 배달된 학급별 상자를 열어보니 워크북, 여권, 포스터, 비밀의 상자 등 2시간 수업을 위한 **교재 및 교구가 이렇게나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재단에서 **우수한 강사를 선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진행하는 2시간 수업을 앉아서 참관했습니다. 워크북 안에 있는 **내용 구성이 흥미롭고, 잘 짜여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활동까지 2시간 안에 마무리하기엔 분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강사님께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하시며 교육과정을 소화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저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많아 40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말하고 강조하여도 실제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식 강의 보다는 활동을 섞은 **조화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디지털 세상의 독특한 크리에이터 과정에서는 **모둠별로 SNS 첫 화면을 꾸며보는 활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퀴즈도 있었구요~ 솜씨가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게 짧으면서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내용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활동을 개발한다면 더욱 의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 백양 초등 학교

2학년 1반

"내년에도 꼭 신청하여  
아이들과 함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대해 배우고 싶다."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미래의 세상을 구하고....  
미래의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

푸른나무재단에서 기획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이번 활동은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너무나도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저학년 아이들이라..... 딱딱한 수업이 될까 많이 걱정했는데 학년 수준에 딱맞는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공감, 배려, 존중, 아름다운 말 등의 디지털 세상에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그 실천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거기다 미션을 해결하면 각자의 여권에 스탬프까지 받으면서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했다.

특히, 마지막에 개봉되는 비밀의 상자는 아이들의 입에서 탄성을 자아내게 할만큼 그 효과가 컸다.

보통 어떤 단체에서 나와 진행되는 수업은 전문성이나 체계성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이번 행사는 기대이상으로 훌륭한 수업이었다.

특히, 2시간 동안 아이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신 강사님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너무 훌륭하여 감동하였다.

학년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내년에도 꼭 신청하여 아이들과 함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다.

